

조사대상 학원 34곳 모두 신고는 적게, 수강료는 바가지 학원비 폭리 광주는 학부모 지옥

지난해 20만원 받고 교육청엔 신고 8만원도

광주지역 학원 대부분이 학원비를 부풀려 받아 경제난으로 가파르거나 어려워진 가계의 주름살을 깊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500개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학부모 1천500명과 수강생 자녀를 둔 1천516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학원비 실태'와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500개 학원 중 66.8%(358곳)에서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았

다. 신고액보다 무려 5배 이상을 받는 곳도 8.1%나 됐다. 특히 광주는 조사 대상 34곳 전체가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전남(여수)지역도 23곳 중 13곳(56.5%)이 수강료를 초과 징수했다. 수강료 외에 시험료와 교재비 등의 추가 비용도 60.4%(324곳)에서 교육청 신고 자료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 같은 초과 징수 사례는 지난해 말 광주시교육청의 학원 특별 단속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당시 학원 13곳을 수

료 초과 징수로 적발했는데, 수확전 문학원인 광주 M학원은 월 수강료를 8만6천300만원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20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종합학원은 월 18만8천400원을 수강료로 신고했지만, 9만여원이 더 많은 27만원을 받다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원에 대해 464만여원의 초과 징수분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동시에 실시된 '학부모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대부분(85.3%)이 학원 수강료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원비 때문에 가게 대충까지 받고 있다. 고등학생 아들, 딸을 둔 학부모 박모(48)씨는 "최근 학원비 등 생활비



한·일 여자배구 진정한 챔피언 가린다

한국팀을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고 있는 흥국생명과 GS칼텍스가 출전하며 일본팀은 전통의 강호 히사미츠 스프링스와 돌풍의 주역 도레이 애로우즈가 출전합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 하우젠드레스티키 등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57 광주일보 창사 57주년 기념 흥국금융그룹배 한일 V리그 탐 매치

전통의 라이벌 한국과 일본 여자배구의 왕중왕을 가리는 빅 매치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일보사와 광주시 배구협회, 한국 배구연맹은 광주일보 창사 57주년을 맞아 한일 여자 프로배구의 4대전왕이 맞붙는 국제배구대회를 개최합니다. 2008~2009 시즌 한일 양국 각각의 프로배구리그를 통해 가려진 1, 2위 팀이 모여 이틀간 승부를 가리는 이번 대회는 전통의 국민스포츠 배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국제스포츠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큰잔치가 될 것입니다.

- 일시: 4월 18일(토) 오후 2시, 19일(일) 오후 1시
- 장소: 광주 염주 종합체육관
- 입장료: 일반 5천원, 학생 3천원 (경기장 발매, 사전구입문의는 220-0541)
- 주최: 한국 배구연맹
- 주관: 광주일보사, 광주시 배구협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광주시체육회,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 협찬: 흥국 금융그룹 Heungkuk Finance Group



다문화 가정 육아교실 웃음꽃 피었네

광주시 남구 다문화 가정 주부들이 14일 월산동 금호평생교육관에서 열린 '다문화 가정 임신·육아교실'에서 강사의 즐거운 강의에 파안대소 하고 있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2008년 말 현재 1만1천923명에 달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주택 55% 재산세 덜 낸다

과세기준을 인하

올해 재산세의 과세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물은 70%로 결정됐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월 인하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광주시 주택 40여만호 가운데 55%, 전남도는 55만 여호 중 44.8%의 올해 재산세가 내리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액으로는 광주, 전남 지역 아파트의 경우 5만원~10여만원까지 줄게된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과세 때 적용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물은 70%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면 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체 주택 1천324만4천호 가운데 55.4%(733만8천호)의 올해 7월 부과 재산세가 작년보다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지난해 산출세액의 30~70%를 납부했던 나머지 44.6%(590만여호)의 주택 소

유자들은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의 75.5%인 약 440만호가 오르고 141만호가 내리는 반면 지방 소재 주택은 80%인 592만8천호가 내리고 150만호 정도가 오른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경우 전체적으로 재산세 부과대상 가구 가운데 절반 가량이 감세혜택을 받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감세가 단행되지만 광주시·전남도 재정에는 심각한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전체 재산세 666억원을 거둬들였으나, 이번 조치로 10억여원 안팎의 손실이 예상된다. 전남도에서는 22개 시·군의 주택분 재산세가 전체적으로 5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지역 55만 여호의 주택에서 종전까지 116억원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44.8%가 감소한 금액이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토지와 건축물에 관련된 재산세는 늘어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택분과 토지분, 건축물 분을 포함한 전체 재산세는 정도로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도의 전체 재산세수는 810억원이었다. /홍형기·윤영기기자 redplane@

北 6자회담 불참 선언

PSI 전면 참여 정부 오늘 발표

"핵 시설 원상복구"

북한의 외무성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것에 반발해 성명을 내고 북핵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불능화 작업이 진행중이던 핵시설을 원상복구해 정상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을 "깨끗이 재처리"할 것이라고 성명을 밝히고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

성명은 또 자신들의 "주체적인 핵 동력 공급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자체의 경우로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자주적인 우주 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장거리 로켓의 시험발사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성명은 "6자회담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 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한 이상 6자회담은 그 존재 의의를 잃어갈 수 없이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국제사회의 대량살상 무기(WMD) 확산방지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WMD 확산방지지구상(PSI)에 전면참여키로 방침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뒤 15일 PSI 전면 참여를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전면참여하면 2003년 5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 전세계 11개국의 발의로 WMD 확산 방지를 목표로 시작된 PSI의 95번째 가입국이 된다. /연합뉴스



매월 2일은 치아검진의날

매월 2일은 치아검진의날. 30년 동안 치아검진에 힘써온 치과 의사들이 치아검진에 힘써주세요.

광주광역시 치과 의사회
치과검진에 앞장서는 치과 의사들이 치아검진에 힘써주세요.